

## 2010년 제8회 APCAAI 싱가폴 학회 참석 후기

관동의대 알레르기내과  
이용원

제 8회 APCAAI 학회가 2010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풀에서 열렸다. 대한천식알레르기 학회의 지원으로 동서양의 연결하며 중개무역을 통해 일찍부터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는 도시국가 싱가풀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학회 기간 말미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참석인원만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지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아마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적절한 비행시간과 시차로 방문 가능하고, 잘 정비된 인프라, 쇼핑공간과 안정된 치안 등 참석자들을 끄는 여러 매력이 합쳐진 결과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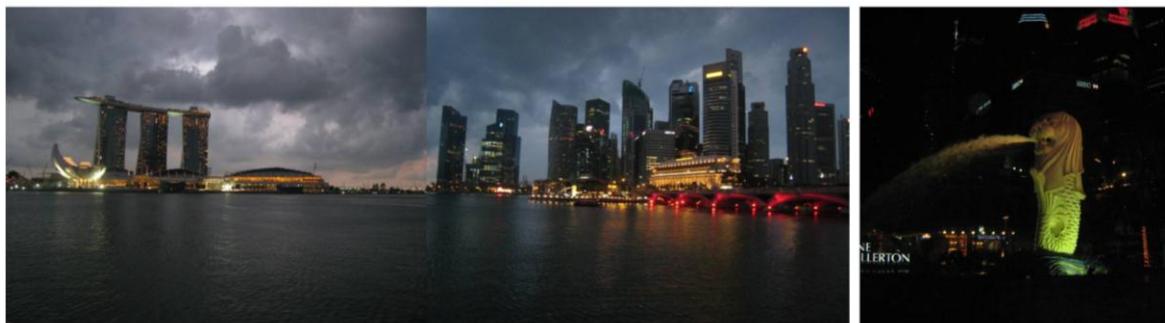


그림 1. 싱가풀 Merline Park 인근에서 바라본 풍경 (우측 사진은 싱가풀의 상징인 Merlion)

학회장인 Suntec Convention Center 인근은 한국의 KOEX 처럼, 호텔, 쇼핑몰, 컨벤션센터가 밀집되어 있고 방문자들이 한 번이라도 쇼핑유혹을 느끼도록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동선을 돌려 놓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풀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고민을 진행하고 있는 듯 보였다.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우뚝 솟아있는 skyline 사이로, 여기저기 벌어져 있는 공사현장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컨벤션 산업, 의료관광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구축하려는 싱가풀의 노력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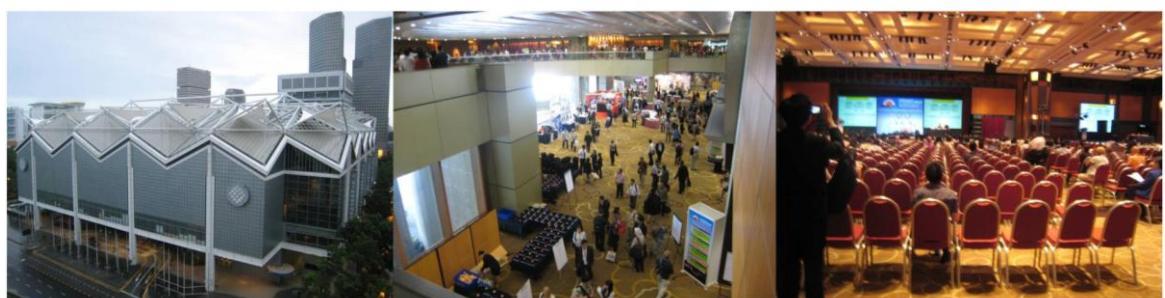


그림 2. 2010년 제 8회 APCAAI 학회가 열린 Suntec Singapore Convention Center



그림 3. 각 Session에서 연자, 좌장 등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교수님들

“From Bench to Bedside: Evidence-based Practice”를 주제로 진행된 2010년 APCCACI 학회는 미국 AAAAI 학회보다 전체규모나 일정의 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참석한 연자의 면면이나 강연내용, 발표 내용은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듯 매우 충실했다.

APCAACI 학회일정 내내 우리 학회에서 활동 중인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여러 과의 교수님들과 전임의, 전공의, 연구원 선생님들의 활약과 적극적인 참여가 단연 돋보였다. APCAACI 기조강연부터 각 Session의 연자, 좌장 등으로 맹활약 하신 선배 교수님들과, 구연과 포스터발표 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상실적까지 올린 여러 선생님의 모습은 학회기간 내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알레르기 분야의 위상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림 4. 포스터 발표장(좌측)과 인기를 끈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AAIR 소개 부스(우측)

한편, 바쁜 학회 일정 가운데, 2015년에 우리학회가 주관하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WAC 학회와 영문학술지 AAIR 홍보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교대로 부스를 지키고 안내하는 여러 젊은 선생님의 현신적 열정과 잘 준비된 리플렛과 기념품 등은 학회 참석자의 발걸음을 여지없이 끌어들였고, 학회 기간 내내 가장 인기 있는 부스가 되었다. 향후 AAIR의 발전을 위한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된 듯 하다.

아울러, APCAACI 회장단, 이사진 곳곳에 포진하신 선배 교수님의 국제 학술교류가 여러 Session과 Coffee Break 마다 펼쳐졌다. 알레르기 분야의 세계적 대가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학술 교류는 후학들에게 여러 가지 비전과 목표를 심어 주고 동기를 부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2015년 세계알레르기학회(WAC) 서울 개최를 위한 자신감과 경험,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다가 왔다.



그림 5. 학회장의 Coffee break 시간(크고 작은 많은 즐거운 만남들이 있었다.)

학회장의 Coffee break 시간에는 학술교류 이외에도 평소에 바쁜 일정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여러 선생님들과의 크고 작은 즐거운 만남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학회 공식 일정이 끝난 저녁에는 여러 선후배님들과의 개인적 친목을 도모하고 소중한 조언과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들이 있었다. 의기투합한 여러 선생님들과 싱가폴의 맛집, 각종 명소를 아주 짧은 시간에 제대로 경험하고 온 것이 APCAACI 싱가폴 학회의 또 다른 추억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싱가폴 학회기간 동안 소식지를 매개체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대선배 어르신들로부터 새내기 후배들까지 잠깐씩이나마 인사와 미소를 나눌 수 있었던 점, 큰 수확이었다. 느닷없이 들이대는 똑딱이 카메라에 수줍은 미소로 포즈를 취해 주셨던 여러 선후배 선생님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다. 돌이켜 보면, APCAACI 2010 싱가폴 학회는 새로 알레르기 분과를 개설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나 자신에게 소중한 꿈과 힘을 안겨준 오아시스 역할을 해주었기에 두고두고 기억이 날 것 같다.



그림 6. 학회 일과가 끝나고 즐거운 한 때 (Jumbo 식당, 호텔 전망카페, Merlion Park에서)